



하느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세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 28)



포콜라레
천주교마리아사협회



사도 바오로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특별히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인 로마인들에게 하느님을 믿도록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사랑하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바오로는 2년 정도 로마에서 살았는데, 경찰이 바오로의 집을 감시하곤 했어요.



바오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하느님께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탈리아의 토마스 경험담이에요.

어느 날 아빠가 직장을 잃었는데, 그 일로 우리 가족은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끼아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돕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저녁에 아빠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커피 타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맛있게 커피를 타서 아빠에게 드렸어요.



며칠 후 아빠는 새 직장을 찾으셨어요. 우리는 모두 아주 기뻐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어요.